낙심해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

성경말씀: 고후1:1-11

도입

"여러분께서는 제가 인생의 기복이 없이 늘 승리하며 탄탄대로를 걸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종종 완전한 절망에 빠져 앞을 분간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존 헨리 조웨트 목사, 1864-1923
"저는 너무나 두려운 영의 침체를 겪어서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저의 비참한 상태에 다다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1834-1892
저 역시 이들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다.
장인어른, 어머니, 동료 교수, 동료의 은퇴, 성경 문제, 교회 이전, 모든 것을 보면 앞이 캄캄하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하며 살아간다.
직장, 재정, 배우자, 학업, 킹제임스 성경, 교회, 교제 등등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생의 아픔
사도 바울의 고백: 8-9절,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다.
"낙심해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 위어스비 목사님의 강해를 참조하여

배경 설명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개척하였다(행18:1-18). 그가 떠난 뒤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디모데를 보내 해결하게 하였으며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 그런데 일이 더 악화되자 스스로 고린도를 방문하려 했으나 안 되었다. 그래서 좀 더 강경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주었고 근심하는 가운데 지내다가 드디어 디도를 만나 일들이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7:13) 고린도후서를 기록함.
고린도후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안위' 혹은 '위로'이다.
바울은 큰 절망과 낙심 중에서 이 위로의 편지를 썼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 때문이다. ★★★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u>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u>을 찬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엡1:3-6).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자녀로서 그분께 나간다.
지상의 예수님을 돌보신 것처럼 양자 된 우리도 아버지가 돌보신다. 공동 상속자
긍휼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원천이 되는 존재, 긍휼의 원천, 은혜와 긍휼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참고 참고 참는 중에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본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와 안위 1-11절에만 11회, 원래 뜻은 '힘을 북돋아준다'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힘을 북돋아준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안위하신다.
지금 낙심 중에 있는가?
나를 바라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나와 같은 인간을 바라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나온다(시121:1-2)

고난의 목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1-11절에는 환난, 고난, 고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의미: 압력을 받아 꼭 조여든 상태
성경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반 고난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특별 고난이 있다: 바울의 경우처럼(8-9)
고난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운명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낸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할 것을 강조한다(9).
바울도 아픈 감정을 가졌다. 무거운 짐을 진 소를 생각해 보라. 고난이 오면 힘들다(8).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신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당신은 믿는가? ★★★

바울의 경우 유대인들이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곳곳에서 그를 추격하며 다녔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건지실 것이다(10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건지실 것이다(10절). ★★★

성도들의 자세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위로를 알 수 없다(4).

여름이 있듯이 겨울이 있다. 낮이 있듯이 밤이 있다.

고난은 침묵의 때요 기도의 때요 조용히 위를 바라볼 때이다.

하나님의 약속: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지속된다.

우리가 고난당함은 위로를 받아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4).

아기를 잃은 가정의 이야기: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트루엣 목사

교회로 모이는 이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모든 고난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가 고난을 통한 위로로 위로해야 한다. ★★★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를 동시에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5).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히4:15).

친히 고난을 겪으사 우리를 구조할 수 있다(히2:17,18). ★★★

예수님도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의 수치를 개의치 않고 이겨내셨다.

사도 바울의 열정: 그는 고난을 당하든 위로를 받든 모두 성도들의 안위와 구원을 위해 감당하였다.

우리 교회의 실정: 멀리서 진리를 찾아서 온다. 고생이 심하다.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

<u>고난을 이길 힘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오는가?</u>(6절)

이 세상은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구원에서 온다.

개인적인 바람: 휴거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다(11절).

특별히 질병과 재정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약5:13).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

금요 기도회에서 성도들 사정을 나누고 기도하기로 함.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기도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11절).

결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온다.

딤후4:7-8

고난의 목적: (1)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2) 우리의 안위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궁극적인 해결책: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과 부활과 휴거에 달려 있다. ★★★